

‘송파 60번’, GPS에 광주동선 나왔는데도 입 달았다

지난 15일 확진 불구 GPS 근거 추궁에도 ‘진술 거부’

이틀 지난 17일 동서 2명에게 ‘확진’ 알려 보건소 신고

20일 간의 사투 끝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잠재운 광주시의 방역망이 서울 ‘송파 60번 환자’의 거짓진술로 한순간에 구멍이 뚫렸다.

광주 방문 사실을 숨긴 ‘송파 60번 환자’의 거짓 진술을 잡아낸 결정적 계기는 GPS와 친인척들의 신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방문판매업체에서 시작한 광주 지역 코로나19 2차 유행은 20일이 지난 17일 확진자가 0명으로 떨어졌다.

금양오피스텔을 시작으로 사찰, 교회, 요양원, 배드민턴 동호회, 고시학원 등 코로나19 확산의 대부분의 연결고리를 찾은 광주시는 잠시나마 확진자 0명을 자축했다.

하지만 하루만인 18일 광주를 찾은 50대 여성 ‘송파 60번 확진자’ A씨의 거짓진술로 광주시의 방역망은 와르르 무너졌다.

A씨와 광주에서 접촉한 친인척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들과 접촉한 직장 동료 등이 추가 감염돼 이틀만에 확진자는 0명에서 11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전남도 1명이 추가됐다.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A씨는 가족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지난 10~12일 자신의 딸(송파 62번)과 함께 광주를 찾았다.

이들은 광주에 거주하는 친인척 15명과 10일과 11일에 세 차례 걸쳐 식사를 했다. 12일은 월산2동에서 택시를 타고 광주 송정역으로 이동, 오전 8시39분 출발하는 SRT를 타고 서울 수서역으로 향했다.

이틀 뒤인 14일, A씨는 부친 137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1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A씨를 상대로 동선 확보를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A씨는 광주 방문 사실을 숨겼다.

보건당국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휴대전화 GPS를 추적했다. GPS 동선에는 광주를 방문한 흔적이 나왔다. 하지만 ‘광주 방문’에 대해 A씨는 끝내 진술을 거부했다.

답답해하던 보건당국은 이튿날인 16일 A씨의 남편과 아들에게 동선을 물었으나 이들은 ‘모른다’고 했다.

A씨 확진 후 이들이 지난 17일 오후 7시를 전후해 송파구보건소는 광주 남구보건소와 북구보건소로부터 각각 ‘송파 60번 환자’가 광주를 다녀간 게 맞느냐는 문의를 받았다.

이날 A씨가 광주 남구와 북구에 사는 손윗 동서 2명에게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고, 이들 동서가 각각 구청 보건소에 신고하고 보건소 측이 문의한 것이었다.

송파구보건소는 경찰 GPS와 동서들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A씨를 추궁했고, 결국 A씨는 광주 방문사실을 털어놓았다.

송파구보건소는 17일 밤 11시50분쯤 광주에서 동선과 접촉자 명단 등을 광주 북구보건소에 통보했다.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이틀 만이었다.

광주시는 발각 뒤집었다. 확진자 0명을 기록한 날 들려온 정전벽력과는 같은 소식이었다.

시는 곧바로 송파 60번의 접촉자를 분류하고 18일 오전 15명의 검체 채취를 진행 9명의 확진자를 찾아냈다.

송파 60번의 조카인 177번 확진자는 이미 발열 증세를 보인 후였다. 177번 환자는 18일 확진됐고 10대 초등학교 재와, 직장 동료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183번 환자가 다니던 희망전문학교에서도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15일, 광주 방문 사실만 알렸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환자들이었다.

A씨의 진술 거부로 광주는 18일 하루에만 초등학교생 342명을 포함해 600여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128명이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확진자도 초등학교생 2명을 비롯해 90대 시어머니까지 친인척 9명과 이들과 접촉한 2명 등 광주 11명, 전남 1명이 추가됐다.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광주의 친인척들이 만난 접촉자는 7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송파 60번 환자가 15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에도 광주 방문 사실을 알렸다면 확진자는 이렇게 크게 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송파 60번의 거짓



광주 지하철 방역작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광주 지하철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광주도시철도공사 19일 지하철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전남 35번 환자'는 '송파 60번'과 접촉한 광주 177번 환자의 직장 동료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광주 지하철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도시철도 제공)

진술 등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이미 2차 감염이 시작됐다”며 “앞으로도 추가 검사자와 확진자, 자가격리자가 얼마나 더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한 사람의 분별없는 광주 친척 방문과 밀접 접촉, 확진 판정 이후 광주 방문

사실 은폐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다”며 “수많은 시민들이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확진자들과 밀접 접촉자들은 방역당국에 동선과 접촉자 등을 숨김없이 신속히 말씀해달라”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지켜지겠지만 고의적 은폐나 비협조

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더욱 엄정하게 처벌토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광주시는 의도적으로 동선을 숨겨 지역 사회에 큰 피해를 준 송파60번 확진자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비 일체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수돗물 유충’ 공포 확산…정부, 정수장 점검 전국으로 확대

정세균 총리 “전국 정수장 긴급점검” 지시…환경부, 오늘 계획 발표

‘수돗물 유충’ 민원이 인천을 넘어 경기 시흥과 서울에서도 잇따라 접수되며 국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인천 지역에서 문제가 된 공촌정수장과 동일한 공정(입상활성탄지)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44개 정수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앞서 수돗물 유충 사태는 지난 9일 인천 서구의 한 주민이 수돗물에서 벌레가 발견

됐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져 나왔다.

환경부는 이러한 인천 지역 민원과 관련해 “인천 공촌정수장에서 수돗물의 맛·냄새·미량유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한 입상활성탄지에서 갈따루 유충이 번식한 뒤 수도관을 통해 가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21일 이러한 정수장 44곳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먼저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부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적 불안은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인천 서구는 물론 부평 계양구, 경기 시흥시와 화성시, 서울 중구에서도 신고가 줄을 잇고 있어서다.

이에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전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전국 정수장에 대한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21일 현장점검 결과 발표와 더불어 전국 정수장에 대한 긴급 점검 추진 계획도 내놓을 예정이다.

정승호 기자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 노사민정이 손을 잡고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냅시다.



- 기업은 고용유지에 힘쓰고
- 근로자는 생산성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 정부는 일자리 안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불안 · 노사갈등 노동문제로 애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등 누구든 신청하시면 직접 방문하여 갈등해소를 위한 중재를 해드립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